오늘 광융합산업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막

9일간…우수제품 등 9개 공동관 120개사 참여
400억 수출계약 체결 목표…종합 상황실 운영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광융합산업 기업의 수출 활로를 지원하기 위해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2020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18일 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이번 수출상담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바이어와 기업 간 상담대상 검색, 상담신청 등의 맞춤형 비즈니스 매칭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략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신기술·우수제품, 광융합 분야별 공동관, 라이다 상용화 기술지원, 광융합 제품 글로벌 보급 로드쇼, 광융합 육성지원 기관 공동관 등 총 9개의 공동관으로 구성되고 광 융합 기업 120개사가 참여한다.

신기술·우수제품 개발업체로 선정된 8개 기업은 ▲초소형·관통형 항공장애표시등 ▲분광학 기반의 성분 분석 기술 ▲영상인식 기반 스쿨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홀로그램 간접조명 ▲원적외선 방사량이 증진된 의료용 온열기 ▲IoT용 4채널 콤팩트 플라스틱 광파이버 모듈 ▲IoT-based Mobile Hybrid solar power system ▲시설물 안전진단을 위한 일체형 광섬유 센서 등 다양한 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인다.

온라인 수출상담회에는 8개국 150명의 해외바이어가 참여한다.

해외바이어 초청과 더불어 비대면으로 상담하는 온라인 종합 상담 상황실을 운영해 국내 기업과 300건 이상의 상담 매칭으로 광융합산업 제품 400억원 이상 구매계약을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행사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운영해 광융합 기업의 수출판로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밖에 관련업계 종사자와 광융합산업에 관심 있는 대상으로 하는 PLC 및 LiDar 산업 발전전략 기술교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광통신 분야 기술개발과 시장 동향, 라이다 센서 원리와 이론 제시 기술동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최신 실무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는 행사기간 중 온라인 수출상담회 공식 플랫폼에서 등록 후 시청 할 수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조용진 부회장은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계기로 국내 광융합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후속 협상과 수출계약 성사가 활성화 되도록 연중 상시 운영해 광융합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실험동 내에 'G-IN메이커스퀘어'를 개소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공

광주혁신센터 'G-IN 메이커스퀘어' 개소

시제품 제작 등 창작활동 지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실험동 내에 누구나 창작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인 'G-IN메이커스퀘어'를 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메이커들에게 다양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허브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G-IN메이커스퀘어는 ▲3D프린터실 ▲납땜기실 ▲레이저커팅기실 ▲수공예실 ▲가공실 ▲목공실 등 총 6개실, 500여개 장비와 공구시설을 갖췄으며, 다양한 메이커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창업교육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디자인과 설계, 시제품제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우수한 아이템은 혁신센터를 통해 투자까지 유치할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의 역할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박일서 센터장은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등 전문적인 창작활동과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 창업·사업화 지원을 바탕으로 메이커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광주인자위, 일학습병행 세미나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광주인자위) 일학습전문지원센터는 최근 어반브룩에서 '제4회 일학습병행 소통·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재직·재학 공동훈련센터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제부장, 도제지원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인자위 일학습전문지원센터는 최근 어반브룩에서 '제4회 일학습병행 소통·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주인자위 제공

주요 내용으로는 일학습전문지원센터의 실적 및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공유, 일학습병행과 코로나19 대응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인자위 임형진 선임위원은 "일학습병행이 한 단계 더 도약해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창출하는 통로가 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정은희 광주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학습병행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들과 협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찬바람으로 말린 '햇굴비' 맛보세요"

이마트, 실내 건조 굴비 선봬…쫄깃한 식감 일품

이마트가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잠조기를 건조한 굴비를 판매한다.

제주, 여수, 목포 바다에서 8월부터 10월 사이에 어획해 바로 실내에서 냉풍 건조시켜 신선함이 살아있는 '햇굴비'다.

이마트가 실내 냉풍 건조 굴비를 선보인 이유는 미세먼지 등으로 영향을 받는 '자연 건조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굴비 건조가 어려운 상황이라 실내 냉풍 건조를 적극 도입했다.

굴비 실내건조는 굴비를 건조 할 때, 외부시설에서 자연풍으로 말리지 않고, 외부와 차단된 실내에서 18도에서 23도 사이의 인공바람으로 건조하는 방식이다.

밀폐된 작업장에서 생산하며, 개인위생관리까지 철저히 관리한다. 굴비 생산부터 건조, 포장까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채 작업이 이루어진다.

실내 냉풍 건조로 물량을 안정적으로 수급해 가격도 파격적으로 낮췄다.

해풍으로 자연 건조할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 건조할 수 있는 기간이 가변적이라 생산 물량에도 영향을 끼쳤다. 실내 건조는 외부 기상 상황과 관계 없이 물량 생산이 가능해 사전 물량 계약으로 가격도 대폭 낮출 수 있었다.

온실 건조와 '섶간' 방식으로 굴비 본연의 맛도 살렸다.

일반적으로 외부 자연풍 시설에서는 반나절 이상 굴비를 건조하지만, 냉풍 시설에서는 2시간이면 건조가 완료된다.

빠른 건조를 통해 살결이 굳어지는 과정이 없어 굴비 본연의 쫄깃함과 고소함을 느낄 수 있고 해풍 건조보다 염도가 낮아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또한 3년 이상 간수를 뺀 국내산 천일염을 이용해 아가미에 간을 하는 방식인 '섶간방식'을 적용해 쫄깃한 식감과 굴비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박선옥 기자

보해양조 '아라소주' 베트남서 인기

23만병 수출…현지업체와 청포도맛 수출 협의도

보해양조가 지난 10월 싱가포르에 과일맛 '원샷소주' 수출에 이어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아라소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과일맛 소주를 개발해온 보해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연이어 수출을 성사시키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보해양조는 이달 중 베트남 수출물량은 아라소주 오리지널 등 23만여병(1억 4,000만원 상당)이다.

아라소주는 동남아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수출전용 상품으로, 오리지널을 비롯해 블루베리, 복숭아, 청사과 맛 등 총 4종류다.

보해양조는 베트남 소비자들을 겨냥한 청포도맛 등 추가제품 생산과 수출에 관해 현지 무역업체인 KORICE와 협의하고 있다.

임채현 보해양조 해외사업팀장은 "지난달 싱가포르에 원샷소주를 수출한 데 이어 이번에 아라소주를 베트남에 수출하며 해외 수출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수출 관련 협의들을 성사시켜서 안정적인 수출망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농업경영목적 적합 농지 찾기 쉬워진다

농어촌공사-농촌진흥청 협약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은행 농지정보와 흙토람의 토양정보를 연계해 제공하기로 했다.

18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맡기면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매매나 임대차를 연결해 주는 공적 농지종합관리기구 시스템이다.

'흙토람'은 작물별 토양적성도, 토양환경지도, 비료사용처방시스템 등 논과 밭의 토양특성 정보와 그에 따른 알맞은 비료 추천량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농지를 구하는 농업인은 경영목적에 접합한 토지를 찾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농지은행포털에 있는 농지목록에서 농지 기본정보와 토양 특성정보, 화학성 정보 등 기초적인 토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작물별 토양적성정보는 링크연결을 통해가 능해진다. /박선옥 기자